

# 경찰, 교통사고 사망자 무단 활용 물의

### 오토바이 사고 숨진 학생 학교서 사진·영상 들고 교육 경찰 “경각심 주려고 제작... 부적절하다고 판단 사과”

경찰이 오토바이 사고로 숨진 10대 교생의 사고 당시 모습이 그대로 담긴 사진을 교육자료로 활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8일 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31일 강진 모 고등학교에서 학생 300여명을 대상으로 오토바이 사고 예방 교육을 했다.

교육에는 경찰이 직접 만든 영상자료가 활용됐다.

2분짜리 영상에는 지난달 강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농수로에 추락해 숨진 이 학교 학생 A(17)군의 사고 당시 모습이 찍힌 사진이 포함돼 있었다.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처참한 사

고 당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

문제는 경찰이 영상자료를 보여주고 사고 개요를 설명하면서 영상을 본 학생들이 사진 속의 인물이 얼마 전까지 함께 공부했던 A군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면서 불거졌다.

깜짝 놀란 A군의 친구들은 영상을 보고 곧바로 유족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유족들은 곧바로 경찰에 항의했고, 경찰은 오토바이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주려는 차원에서 부적절한 사진을 포함했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문제 영상은 곧바로 폐기됐다.

A군 아버지는 “아무리 교육이라지만 죽은 자식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노출됐더니, 자식 잃은 부모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강진경찰서 관계자는 “관내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을 주려는 차원에서 만들었는데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 못 했다”며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취지는 아니었지만, 부적절하다고 판단돼 곧바로 사과했다”고 해명했다.

/강진·전원빈 기자 wonbin@

## 도둑 양심? “100만원 중 60만원만”

### 목욕탕 탈의실서 목욕관리사 젖돈 훔친 40대 여성 입건

광주 북부경찰서는 목욕탕 탈의실에서 목욕관리사의 젖돈 60만원을 훔친 혐의(절도)로 A(47·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절도 등 전과 19범인 A씨는 지난 5월 28일 정오께 광주 북구 중흥동의 한 목욕탕에 손님으로 들어가 50대 목욕관리사가 옷장에 보관해놓은 현금 6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목욕관리사가 옷장 열쇠를 놓아둔 장소를 유심히 보

고, 피해자가 일하는 틈 타 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목욕관리사는 마침 젖돈 100만원을 받아 봉투에 넣어 옷장에 보관 중이었으나, 이중 60만원을 도난당했다.

경찰에 추적이 불잡힌 A씨는 “양심 상 100만원 중 60만원만 훔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품을 회수했고, A씨가 홀로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등의 사정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강상구 기자 rktdkdrn0913@

### 서해 오징어 어장서 불법조업 어선 또 적발...울 36척 나포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58t급 유망 중국어선 Y호를 나포했다고 9일 밝혔다.

Y호는 지난 7일 오후 7시 50분께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서쪽 약 64km(우리 EEZ 내측 31km) 해상에서 잡은 오징어 515kg을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 무허가 어선 11척을 포함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36척을 나포해 담보금 28억8천여만원을 부과했다.

김육식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서해 중부 EEZ 해역에 오징어 어장이 형성돼 중국 유망어선 100척 이상이 우리 수역에 들어와 조업함에 따라 지도선을 집중 배치해 24시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승아 기자 tmdk9960@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58t급 유망 중국어선 Y호를 나포했다고 9일 밝혔다.

## 뇌물 받고 편의 봐준 한전 간부 6명 징역

### 전기 사업비 몰아줘...법원 “업무수행 공정성 등 훼손”

전기공사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사업비를 몰아주거나 편의를 봐준 한국전력공사 간부직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전 직원 6명에게 각각 징역 8~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4명에게는 각각 벌금 1천만~2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들 모두에게는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각각 200만~2천100만원을 추징했다.

이들은 모두 한전 모 지역본부 간부직원(1~3급)이다.

관할 지역의 전기예산 배정, 공사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점을 이용, 전기공사 업체에게 임의로 사업비를 추가 배정해주고 각종 편의도 봐줬다.

이들이 2017년 업자 3명에게 받은 뇌물 액수는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2천100만원에 이른다.

업자들은 관리·감독권이 있는 한전 직원에게 뇌물을 주고 전기공사를 독점하며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

김 판사는 “한전 직원들의 뇌물수수 범행이 끊이지 않고 있고, 이런 범행으로 인해 한전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 신뢰를 훼손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뇌물거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 단계에서부터 순순히 범행을 시인하고 수사에 협조했다. 받은 돈 일부를 부서 경비 등으로 사용했고 수십년간 한전에서 근무하면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승아 기자 tmdk9960@

## 광주 모 장외주식 전문회사 부당거래 의혹

### 혈값에 산 장외주식 비싸게 팔아 부당이익...경찰 수사

검찰이 광주의 한 장외주식 전문회사의 부당거래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9일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광주 모 장외주식 전문회사 P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회사 대표 A씨의 비상장주식(장외주식) 부당거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장 기업의 장외주식을 혈값에 사들여 비싸게 팔아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장외주식은 미래 성장 잠재력이 있거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종목도 많아 의외의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상장 주식보다 기업 정보가 부족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기나 불공정 거래 위험이 크고, 개인 간 매매가 이뤄져 피해 구제가 어렵다.

P사는 광주를 비롯해 전국 9개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장외주식 거래, 크라우드

펀딩, 보험 등을 관리하는 종합자산관리 회사를 표방하고 있다.

대표 A씨는 증권 전문방송에서 장외주식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 초에는 광주·무안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한 소형 항공사를 세우고 광주와 김포를 오가는 항공노선을 취항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장외주식 거래 관련 의혹이 있어 수사하고 있다”면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승아 기자 tmdk9960@

## 장흥 해상서 어선 압초와 충돌...선장 숨져

지난 8일 오전 5시 53분께 장흥군 장관도 동쪽 0.8km 해상에서 7.31t급 어선 D호가 압초에 부딪혀 좌초했다는 신고가 안도해경에 접수됐다.

해경은 경비함정을 사고 현장에 보내 승선원 3명을 구조했다.

선원들로부터 선장 박모(53)씨가 바다에 빠져 실종됐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해경은 경비함정, 항공대를 동원해 수색을 벌였다.

해경은 신고 접수 9시간 만인 오후 2시

55분께 사고 현장에서 300m 떨어진 해상에서 숨진 박씨를 발견했다.

항적도 분석을 토대로 사고 시간을 전날 오후 10시로 추정해 해경은 선원들이 신고하지 않은 경위도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박씨의 시신과 사고 선박을 고흥 녹동 조선소로 옮겨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강상구 기자 rktdkdrn0913@

기사제보 227-0000

Sunshine GWANGYANG

희망찬 도약 새로운 광양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청년이 꿈을 이루는 희망도시,  
여성이 안전하고, 어르신이 건강한

행복도시\_광양